

자연과 소통하는 용인 동백의 단독주택

Proposal Naturalism for a Modern

도심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거 공간을 갖고 싶어한다.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심에서 벗어나 용인 동백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유혁민 씨 집으로의 초대. 에디터 김소진 사진 이충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오후, 서울에서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마북터널을 빠져나오면 잘 닦인 도로가 뻗어 있고,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길을 따라 우뚝 솟아 있는 용인 동백지구가 모습을 드러낸다. 택지 지구 지정 이후 터 파기 작업이 한창 진행될 때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동백지구에 지금은 고층 아파트와 상가 건물들이 자리를 잡았고, 입주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 소방서 방향으로 가다 보면 타운하우스인 동백 하우스토리를 비롯해 여러 건축·시공 업체들이 짓고 있는 독특한 외관의 단독주택들을 만날 수 있다.

도심과 가까운, 쾌적한 고급 단독주택

다양한 외관의 주택들 가운데 모던하면서도 심플한 2층 단독주택이 바로 유혁민 씨의 새집이다. 주택 건축 업체의 임원인 유혁민 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위한 집을 갖고 싶어 동백지구의 단독 택지를 매입해 이 집을 지었다.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설계 디자인을 잡을 때부터 건축주가 참여해 자신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욕구와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건축·시공 업체(주)홈포인트코리아가 시공과 인테리어를 맡은 지하 1층(33㎡), 지상 2층(1층 116㎡, 2층 99㎡) 규모의 유혁민 씨 집은 약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다. 지난 가을 분당에서 용인 동백지구로 이사를 온 유혁민 씨는 "앞으로 동백지구 상권이 좀더 활성화되면 분당보다 더 살기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동백역 앞에 마트 및 상업 시설이 풍부하고,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에 교육 및 생활 편의 시설이 있어 맘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보다 공기가 좋아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현재 일곱 살배기 딸이 동백지구에 있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내년에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할 거라고 웃으면서 말한다.







실내에서 외부 중정과 소통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적용한 유혁민 씨 집은 일본산 내·외장재와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쾌적하면서도 실용적이고, 기능이 돋보인다. 실내로 들어가는 현관에는 가죽 무늬 패턴의 신발장과 블랙과 그레이 톤의 천연 대리석 타일을 매치해 모던한 고급스러움이 배어났다. 입구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양쪽 벽면에는 기능성 소재인 에코카라트와 게르마늄 석재를 사용했다. 그리고 자칫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벽면을 컬러풀하게 디자인한 유리조명과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실내로 들어서면 가운데 중정(中庭)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거실, 왼쪽으로는 주방과 식당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LDK(Living-Dinning-Kitchen)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외부 중정의 데크를 중심으로 거실과 식당, 주방을 연계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인 취향이 변해서 공간 구조를 바꾸고 싶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거실과 주방에서 중정으로 향하는 큰 창을 열면, 거실과 주방이 서로 오픈된 듯한 느낌을 주어 확 트인 개방감이 느껴진다. 요즘은 중정 밖에서 향긋한 봄바람이 불어와 실내에서도 푸릇푸릇한 풀과 나무, 꽃내음을 맡을 수 있어서 아이와 부인이 너무 좋아한다고, 유혁민 씨는 거실과 주방 사이에 중정이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손님을 접대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주방에서 조리하거나 식사하는 소리로 인해 방해받지 않아서 좋다고 말한다.

거실에는 기존의 아트 월이나 TV 장식장 대신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책장 느낌을 거실장을 벽면 전체에 깔았다. 천장은 탈지제와 흡착제 역할을 하는 구조토로 마감했고, 아이보리 톤의 벽지를 사용해 거실 전체가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거실 안쪽에는 여담이문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오리엔탈풍의 좌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의 정면에는 '화조도(花鳥圖)'를 그려 넣은 듯한 벽화 느낌의 뮤럴(Mural) 벽지로 마감해 동양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주방에는 조리를 하면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탁과 대면하는 아일랜드형 싱크대를 설치했다. 바닥은 주방의 위생과 청결을 고려해 이탈리아산 타일을 사용했고, 일본 유명 브랜드인 '선 웨이브'의 싱크대를 설치했다. 선 웨이브의 싱크대는 조리 도구를 효율적으로 보관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2층은 드레스 룸과 욕실, 침실이 연계되는 마스터 베드룸과 두 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다. 마스터 베드룸의 침실 내부는 일부 공간을 파티션으로 구분해 미니 서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침실에서 바로 이어지는 외부 테라스의 데크에는 가족들과 차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05



06

079



있다.

파스텔 톤의 벽지와 컬러풀한 조명 등으로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한 아이 방에는 지붕의 경사면과 계단의 단 차이를 이용한 다락방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는 장난감이나 책을 수납할 수 있고, 놀이를 즐길 수 있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단독주택은 더 이상 최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자신의 집에 대한 소유욕과 애착 또한 커지면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첨단 산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도시민들은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보다 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을 더 선호하게 됐다. 그렇다고 도심 생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의 편의성을 누리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주거 공간이 더욱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싶다. ☺

※**에코카리트**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 습기를 빨아드리고, 습기가 낮아 건조하면 습기를 배출해 녹늅함이나 건조함을 억제해 쾌적한 상태인 40~70%의 습도를 유지시켜 준다.

※**게르마늄** 산소 공급 촉진 효과에 따른 세포 활성화로 인해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반도체 성질로 인해 피부에 닿으면 게르마늄 이온이 체내에 들어가 생명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01 외부 중점을 중심으로 거실과 주방, 식당이 좌우로 나뉘져 있어서, 거실에서 손님과의 대화를 나눌 경우 주방과 식당에서 조리하거나 식사를 하는 소리로 방해를 받지 않아서 좋다. 02 지상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향하면 테라스와 딸린 마스터룸과 미니 거실을 만날 수 있다. 03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벽면에 조명과 색상을 입혀 생동감을 더했다. 04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이 살아있는 현관 입구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05 벽면을 창으로 마감해서 채광과 쾌적함, 개방감이 돋보이는 1층 거실. 06 식당 테이블과 마주보도록 배치된 아일랜드형 주방 싱크대는 조리 및 주방 도구를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기능성이 돋보인다. 07 외부 테라스와 이어지는 2층의 거실은 깔끔하고 모던하다. 08 천장의 높이를 달리해서 만들어진 다락방 공간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다.

- 개요 P2공법(양단열 철근 콘크리트조)
- 대지 면적 210.00㎡
- 건축 면적 125.43㎡
- 연면적 251.60㎡
- 외부 마감 일본 kmew사 사이딩(광촉매 시멘트 사이딩)
- 지붕 마감 일본 kmew사 슬레이트
- 바닥 마감 수입 원목 마루, 온돌 마루, 타일

